

스포츠 종합

6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13일(한국시간) 모나코에서 열린 ATP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단식 2회전에서 알레한드로 다비도비치 포키나(스페인)에게 1-2로 패한 뒤 씁쓸한 표정으로 관중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모나코 AP뉴시스

2개월만에 복귀 조코비치 조기탈락 “경기 내내 밧줄에 매달려 있는 느낌”

ATP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단식 2회전 1-2

노박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13일(한국시간) 모나코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단식 2회전에서 알레한드로 다비도비치 포키나(스페인)에게 세트스코어 1-2(3-6 7-6 1-6)로 패했다. 2월 두바이 듀티프리 챔피언십 이후 2개월 만에 복귀한 무대에서 일찌감치 탈락의 고배를 마신 조코비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로 인해 1월 호주오픈과 3월 BNP파리바오픈, 마이애미오픈 등에 나서지 못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조코비치는 클레이코트에서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포키나의 공세에 끌려 다니다가 맥없이 무너졌다. 경기 후 조코비치는 “상대가 나보다 더 나은 선수였다. 나는 경기 내내 밧줄에 매달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기를 들면서 제한적으로 대회에 출전 중인 그는 다음달 프랑스오픈에는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당국은 최근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의 입국을 허용했다.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오늘 개막…박민지·김세영 등 별들 총출동

K-뷰티의 선두주자 ‘엘앤피코스메틱(회장 권오섭)’의 글로벌 마스크팩 브랜드 메디힐과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2시즌 두 번째 대회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상금 10억 원)이 14일부터 경기 여주의 페럼CC(파72)에서 나흘간 펼쳐진다. 신설대회로는 이례적으로 총상금 10억 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KLPGA 투어 대상·상금·다승 등 3관왕을 차지했던 박민지를 비롯

해 장하나, 박현경, 유해란 등 국내파 스타플레이어들이 총출동하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각각 통산 12승, 6승을 기록 중인 메디힐 골프단 소속 김세영과 유소연 등 해외파도 참가해 뜨거운 열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회는 코로나19를 딛고 KLPGA 투어에서 2019년 10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갤러리들의 입장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개막을 하루 앞둔 13일 포토콜에서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가운데 두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장수연, 박민지, 유소연, 김세영, 박현경, 이다연(왼쪽부터). 사진제공 | KLPGA

WKBL KB스타즈-우리은행 챔프 2차전 ‘옥에 티’

비디오 판독에도 룰 오적용…챔프전 맞아?

박지현 점프 착지때 박지수와 충돌
수비자 파울 지적해야 할 상황 불구
박지현 루스볼 파울…KB엔 자유투
최고 심판들 관장…‘매의 눈’ 아쉬움

청주 KB스타즈와 아산 우리은행은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 챔피언 트로피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KB스타즈는 안방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5전3승제) 1·2차전을 모두 잡아 통합우승에 1승만을 남겨뒀다.

그러나 최고의 잔치가 돼야 할 무대에서 모두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든 판정이 나와 큰 아쉬움을 남겼다. 12일 청주체육관에서 벌어진 2차전 3쿼터 종료 1분여를 남기고 우리은행 박지현이 돌파에 이은 왼손 레이업슛을 성공시켰다. 그는 착지하며 KB스타즈 박지수와 충돌했다. 심판의 휘슬이 나왔다. 비디오판독 끝에 박지현의 득점은 인정하고, 루스볼 파울에 따른 자유투를 KB스타즈에 주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누구도 이해 못할 판정이다. 농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



12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시즌 여자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2차전 3쿼터 종료 1분 전 우리은행 박지현(오른쪽)이 레이업슛 성공 직후 착지하면서 KB스타즈 박지수와 충돌했고, 비디오판독까지 거쳤음에도 우리은행의 루스볼 파울이 선언돼 논란을 낳았다.

청주 1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우동할 수밖에 없다. 박지현이 돌파한 뒤 슛을 던지기 위해 점프하는 시점에 수비자의 파울을 지적해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다. 박지수는 정면으로 박지현

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

국제농구연맹(FIBA) 규정을 보더라도 슛 동작은 점프한 뒤 양 발이 착지해야 종료된다. 박지현은 거의 착지하는 시점에 박지수와 충돌했다. 슛 동작이 마무리된 게 아니었다. 이 때문에 루스볼 상황도 아니다. 박지수에게 파울을 지적하고, 박지현에게 추가 자유투를 주는 게 정심에 가깝다.

심판부가 비디오판독을 한 이유는 충돌한 상황에서 고의성을 확인하고, 박지현의 박지수 가격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격은 없었다. 박지현은 슛을 던지고 충돌하는 시점에 왼팔을 접었다. 박지수의 어깨가 박지현의 겨드랑이 부분에 끼면서 몸끼리 부딪혔다. 비디오판독을 통해 확인된 만큼 박지현에게 일반 파울을 주긴 했다.

챔피언 결정전은 WKBL 소속 최고 심판들이 관장한다. 그런 만큼 이번과 같은 룰의 오적용은 정규리그에선 흔히 나오는 오심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선수들이 흘리는 땀이 심판들의 단순 실수가 아닌 룰 오적용으로 차갑게 식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간편한 헤어칼라

순한결

1제, 2제가 하나로
1회 염색 한 달까지

(즉석 샴푸식 염색)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절로~ (3분염색)

사은품과 2개월 무료 체험분을 드립니다.

총 18Box 57회분
(본품 15box+사은품3box+무료체험분 3회분)

80%이상 자연유래 성분
1제, 2제가 하나로~

3분 만에 즉석염색,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한번에~

중년이 넘어서 자신의 회색회색해지는 머리카락, 머리 염색으로 3~40분을 불편하게 낭비해야 되는 시대는 옛날이다. 손에 짜서 머리에 비벼주고 3분 뒤 머리감으면 깔끔하게 염색이 되는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간편한헤어칼라 순한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1제2제가 하나로 된 샴푸식으로 3분 만에 즉석 염색이 되며 특히 한 번 염색으로 한 달까지 색상을 유지해 준다. 검은콩, 여성초, 뽕나무뿌리, 고추등 18가지 80%이상 자연유래 성분이 두피와 모발의 자극을 최소화시켜 윤기 나는 깨끗한 컬러로 연출해 주며 미세한 거품으로 흘러내리지 않아 혼자서도 쉽게 염색을 할 수 있다.

색상은 3가지로 검정색, 진한갈색, 자연갈색으로 사용자의 모발에 맞게 선택하여 더욱 멋진 염색을 연출해준다. 샴푸한 듯 은은한 향기와 빠른 염색시간 덕분에 출근 전에 즉석 염색, 대중사우나에서도 남을 의식하지 않고 걱정 없이 염색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간편한 헤어칼라 순한결”은 본 품이 15박스, 추가 사은품 3박스, 무료체험분 1박스(3회분), 총 18박스를 59,800원에 동방 드리는 할인행사다. 또한 고객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 2개월 동안 사용 후 불만족 시 무료체험분을 제외한 18박스는 무조건 구입한 가격으로 100% 전액을 환불해주며 반품 시 택배비용만 소비자 부담된다.

※ 머리에 비벼주면 즉시 검게 변하기 때문에 1회용 주방 비닐장갑을 착용하세요. 머리를 감을 때 피부는 잘 지워지지만 손톱에 묻은 염색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1. 피우치를 절반으로 잘고 뒷부분을 빗자기로 정리합니다.

2. 헤어서 폼-피우면 1제, 2제가 동시에 나옵니다.

3. 물 세운 후 머리카락에 미네랄 거품이 나오도록 골고루 비벼줍니다.

4. 3~5분 뒤 미온수로 헹구면 염색 끝!

옷, 알러지, 피부트러블, 눈 따가움 걱정 끝!

꽃이 전혀 타지 않는 염모제
감아조아 갈라 염모제

1제, 2제를 각각 10분씩 발라 염색하는
꽃타지 않는 10분염색 ‘감아조아’

꽃타지 않는 염모제 본 제품을 투여하십시오.

판매가격 : 69,800원
*선용카드 3개월 무이자, 일부 카드제외

염색방 프랜차이즈 모집

*본 제품은 샴푸방식이 아닙니다.

■ 제조원: 로위더스 (주)

■ 제조원: ㈜세라코스메틱 ■ 판매원: 대양라이프

총18Box(57회분) 할인판매 59,800원 (카드 3개월 무이자, 일부 카드제외)

주문전화: 1544-0563 www.대양라이프.kr